

# 『東醫寶鑑』 <序>와 <集例>에 대한 고찰

이혁재 · 차웅석 · 김남일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points of DongUiBoGam(東醫寶鑑) based on the preface(序) and Compiled Examples(集禮) of DongUiBoGam(東醫寶鑑).*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 1) DongUiBoGam(東醫寶鑑)'s InSinReon(人身論: man-body doctrine) states that Form(形-hyeong) and Jeong(精), Ki(氣), Sin(神) are the foundation and the Organs are the mediators.*
- 2) DongUiBoGam(東醫寶鑑) includes Taoism, Buddhism, and Medical Science.*
- 3) DongUiBoGam(東醫寶鑑)'s NaeGyeongChapter(內景篇), OeHyeongChapter(外形篇), JapByeongChapter(雜病篇)'s name shows that each chapter's key concept is Gyeong(景-??), Hyeong(形-Form), and Byeong(病-Sickness).*
- 4) The purpose of DongUiBoGam(東醫寶鑑) is Following the Ideas Handed Down From Forefathers(慕古人之遺意), and in this prospect, the context could be named, 'The Treasure Box and Mirror of Eastern Ideas' (東意寶鑑-DongUiBoGam).*

## I. 序論

『東醫寶鑑』은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鍼灸篇」 「湯液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편은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각 문과 목적이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여러 의서가 너무 방대하고 번잡하니 그 요점을 고르기에 힘쓰라는 宣祖의 하교를 받아 시작한 작업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다.

『東醫寶鑑』에서 밝히려는 요점을 살펴 헤아리기 위해선 『東醫寶鑑』이 편찬배경과 취지, 『東醫寶鑑』 및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鍼灸篇」 「湯液篇」 이란 이름이 만들어진 연유,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鍼灸篇」 「湯液篇」의 순서를 따르게 된 이유를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한 서술은 『東醫寶鑑』 <序>와 <集例>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東醫寶鑑』 <序>와 <集例>를 중심으로 『東醫寶鑑』의 요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東醫寶鑑』 <序>에 나타난 『東醫寶鑑』 편찬 배경과 취지

『東醫寶鑑』이 편찬된 배경은 『東醫寶鑑』이 완성될 당시 李廷九가 光海君의 하교를 받아 지은 서문인 <東醫寶鑑 序>에 잘 드러난다.

『東醫寶鑑』은 宣祖가 丙申年(1596년)에 太醫인 신하 許浚을 불러 하교한 이래 儒醫인 鄭礎, 太醫인 楊禮壽, 金應鐸, 李命源, 鄭禮男 등과 더불어 편찬국을 세워, 모은 책들을 편찬하여 간략히 정리하였을 때 정유재란을 당하여 여러 의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마침내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 후 宣祖가 다시 許浚에게 하교하여 혼자서라도 편찬하라 하고, 보관하였던 의서 오백권을 내어주어 이를 바탕으로 참고하고 근거로 삼게 하였으나, 편찬을 아직 반도 이루지 못한 때 宣祖가 세상을 뜨게되고, 광해군이 즉위한 지 삼년째인 景壽年(1610년)에 이르러 책이 진상되었다.<sup>1)</sup>

宣祖가 병신년(1596년)에 許浚에게 하교한 내용은 『東醫寶鑑』을 펴내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요즈음 中國의 醫書를 보면 모두 용렬하고 조잡한 것만 모아 놓아 볼 만한 것이 없다. 마땅히 여러 醫書를 널리 모아 하나의 책으로 편집하라. 또한 사람의 질병은 모두 조리와 섭생의 잘못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修養을 우선으로 하고 藥物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 여러 醫書가 너무 방대하고 번잡하니 그 요점을 고르기에 힘쓸 것이다. 가난한 시골과 외딴 마을은 醫師와 藥이 없어서 일찍 죽는 자가 많다.

1) 許浚, 『東醫寶鑑』, <序>(李廷九가 씀), 1쪽 참조. 光海君이 즉위한 해는 1609년이므로 庚戌年이 맞다면 光海君 2년이고, 光海君 3년이 맞다면 辛亥年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가 본 글의 논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鄉藥이 많이 나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 마땅히 (이들 약물을) 분류하고 鄉藥名을 함께 써서 백성들이 알기쉽게 하라.”<sup>2)</sup>

이를 다시 정리하면 새롭게 편찬될 책의 성격은 여러 醫書의 내용을 모으되 요점이 분명해야 하며, 藥物 이전에 修養을 우선시 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골 벽지에 까지 그 혜택이 두루 미칠 수 있도록 하라는 命이라고 할 수 있다.

宣祖의 뜻이 이렇기에, 李廷九는 <序>를 통해 『東醫寶鑑』이 宣祖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다.

먼저 <序>의 첫 부분은 ‘天紀’와 ‘人理’를 다한 黃帝와 岐伯의 醫法이 후세에 이르러 본 뜻과 어긋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醫學을 하는 자들은 늘 黃帝와 岐伯을 말한다. 黃帝와 岐伯은 위로는 하늘의 법도(天紀)를 다하고, 아래로는 사람 사는 이치(人理)를 다하였으나 굳이 글을 남기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의문점을 말하고 어려운 것을 드러내어 후세를 위해 그 법을 세웠으니, 醫學界에 醫書가 있는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위로는 淳于意와 扁鵲에서부터 아래로는 劉完素, 張從正, 朱震亨, 李杲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과가 끊임없이 생겨나 학설이 분분하였고, 부분을 표절하여 다투어 파벌을 만드니, 책이 많을수록 임상(術)은 더욱 어두워져서 『靈樞』의 본래 뜻과 큰 차이가 난다. 세속의 용렬한 醫師들은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經典의 가르침을 배반하여 자의적으로 쓰기를 좋아하거나, 옛날의 고정적인 데(常) 얽매어 변화를 알지 못하기도 하니, 분별하고 고르는 데 어두워 요점을 잃어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많았다.”<sup>3)</sup>

그러므로 李廷九는 宣祖의 취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醫術은 책이 아니면 (그 내용을) 실을 수 없고, 책은 가리지-즉 취사 선택하지- 않으면 정교하지 못하게 되고, 가려 뽑되 그것이 넓지 못하면 理致가 분명하지 않으며, 널리 전하지 못하면 혜택이 널리 미치지 못한다.”<sup>4)</sup>

2) 『東醫寶鑑』, 1쪽

3) 『東醫寶鑑』, 1쪽

4) 『東醫寶鑑』, 1쪽

이러한 宣祖의 취지에 부합하는 요건을 李廷九는 의술의 1) 책을 통한 정미함(精), 2) 이치의 분명함(明), 3) 혜택의 廣布함을 들고 있으며, 『東醫寶鑑』이야말로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구현해 냈다고 본다. 『東醫寶鑑』〈序〉는 글 마무리에 이 요건에 걸맞는 책이 바로 『東醫寶鑑』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책은 옛날과 오늘의 것을 두루 갖추어 묶고 여러 사람의 말을 절충하여 근원을 탐구하고 원칙과 요점을 잡았으니, 상세하되 산만하지 않고 간결하되 포괄하지 않음이 없다. <內景>, <外形>으로부터 시작하여 雜病과 여러 가지 처방을 나누고, 脈訣, 證論, 藥性, 治法, 攝生과 養生의 요점, 鍼灸의 여러 법규에 이르기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고 질서정연하여 문란하지 않다. 그리하니 病이 비록 그 증상이 백가지 천가지로 나뉜다 하여도 補瀉와 緩急을 잘 한다면 널리 대응하여 모두 理致에 들어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태여 이러저러한 조문(房門)을 살필 필요도 없이 분류한 데(類)에 따라 處方을 찾으면 중첩하여 거듭 나오니, 어떤 證에 대하여 藥을 투여하여도 左契처럼 꼭 들어맞는다. 진실로 醫學하는 이의 귀한 거울(寶鑑)이요, 세상을 구하는 훌륭한 법이다.”<sup>5)</sup>

이상 『東醫寶鑑』〈序〉를 통해 東醫寶鑑의 편찬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았다. 丙申年(1596년)에서 庚戌年(1610)까지 15년 간 許浚 등의 노력에 의해 丁酉再亂(1597년)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보게 되었다. 李廷九는 비록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醫術을 겸비한 자라 할 수는 없지만, 宣祖의 취지에 따라 醫術이 1) 책을 통한 정미함(精), 2) 이치의 분명함(明), 3) 혜택의 廣布함을 지녀야 된다고 본 점은 『東醫寶鑑』을 해석하는 중요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龜岩 許浚이 서술한 <集例>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 <集例>에 대한 概要와 全文

### 1) <集例>에 대한 概要

<集例>는 <東醫寶鑑 目錄> 다음으로 『東醫寶鑑』 「內景篇」에 소속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東醫寶鑑』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集例>’의 사전적인 의미가 ‘본보기를 모으다’라는 뜻을 감안해 볼 때 <集例>는 전적으로 「內景篇」에 속한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東醫寶鑑』의 편제에서 『東醫寶

5) 『東醫寶鑑』, 1쪽

鑑』〈序〉와 〈東醫寶鑑 總目〉이 있고 나서야 『東醫寶鑑』 「內景篇」이 시작되는 데, 전체 목차를 총 목보다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東醫寶鑑目錄〉과 이후 〈集例〉, 〈歷代醫方〉이 위치하고 나서, 명실상부 하게 『東醫寶鑑』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身形藏府圖]가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東醫寶鑑目錄〉에서도 본문의 시작은 〈身形〉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할 때, 〈東醫寶鑑目錄〉, 〈集例〉, 〈歷代醫方〉은 『東醫寶鑑』 전체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본 논문에서는 〈集例〉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集例〉는 네 단락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글이다. 첫 번째 단락은 『東醫寶鑑』에서 보는 人身의 理致와 醫道の 요점을 서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은 藥材의 分量, 藥性, 鄉藥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택의 광포함을 중시하였으며, 네 번째 단락은 책명을 ‘東醫寶鑑’이라고 한 연유를 밝혀 『東醫寶鑑』이 정미로울 수 있는 근거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集例〉는 한 문장 한 문장이 『東醫寶鑑』을 이해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

차칫 〈集例〉 전반에 담긴 논지를 흐리지 않도록 〈集例〉 전문을 게재한 뒤 다음 장에서 각 단락에 대해 분석한 뒤, 〈集例〉가 『東醫寶鑑』이 이뤄지기 위해 어떤 ‘본보기를 모으고 있는지’를 살펴도록 하겠다.

## 2) 〈集例〉全文

### 『東醫寶鑑』〈集例〉<sup>7)</sup>

臣謹按 人身 內有五臟六腑, 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以成其形, 而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 故道家之三 要 釋氏之四大, 皆爲此也. 黃庭經有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境界之圖. 道家以清淨修養爲本, 醫門以藥餌 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 今此書, 先以內景精氣神藏府爲內篇, 次取外境頭面手足筋脈骨肉爲 外篇. 又採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諸病之證, 列爲雜篇, 末著湯液鍼灸, 以盡其變, 使病人開卷目擊, 則虛實輕重吉凶死生之兆明若水鏡, 庶無妄治夭折之患矣.

古人藥方所入之材, 兩數太多, 卒難備用. 局方一劑之數尤多, 貧寒之家何以辨此. 得效方醫學正傳皆以 五錢爲率, 甚爲藹莽. 蓋一方之四五種, 則五錢可矣, 而至於二三十種之藥, 則一材僅入一二分, 性味微小, 焉能責效. 惟近來古今醫鑑萬病回春之藥, 一貼七八錢, 或至一兩, 藥味全而多寡適中, 合於今人之氣稟,

6) 『東醫寶鑑』의 서술방식은 제목을 잡은 뒤 그와 관련된 내용과 출처를 밝히는 형식으로 되었다. 따라서 〈東醫寶鑑 目錄〉과 〈歷代醫方〉은 이후 서술될 『東醫寶鑑』 본문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7) 許浚, 『東醫寶鑑』, 69쪽.

故今者悉縱此法，皆折作一貼，庶使劑用之便易云.

古之云，欲學醫，先讀本草以知藥性，但本草浩繁，諸家議論不一，而今人不識之材居其半，當撮取方今行用者，只載神農本草經及日華子註東垣丹溪要語。且書唐藥鄉藥，鄉藥則書鄉名與產地及採取時月，陰陽乾正之法，可易備用而無遠求難得之弊矣.

王節齋有言曰，東垣北醫也，羅謙甫傳其法以聞於江浙。丹溪南醫也，劉宗厚世其學以鳴於陝西云。則醫有南北之名尚矣。我國僻在東方，醫藥之道不絕如線，則我國之醫，亦可謂之東醫也。鑑者，明照萬物，莫逃其形，是以元時羅謙甫有衛生寶鑑，本朝 龔信有古今醫鑑，皆以鑑爲名，意存乎此也。今是書，披卷一覽，吉凶輕重，皎如明鏡，故遂以東醫寶鑑名之者，慕古人之遺意云.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단, <集例> 원문에서 구분한 단락은 한 줄을 띠었고, 단락 내의 문장은 분석하고자 하는 단위대로 임의로 단락을 나누고 다음 장에서 분석하는 것과 일치하는 번호를 매겼다.)

臣이 삼가 사람의 몸을 살펴보건대, 안으로는 五臟六腑가 있고 밖으로는 근과 골, 기와 육, 혈과 맥, 그리고 피부가 있어서 그 形을 이룬다. 그리고 精氣神은 또한 장부와 백체의 主가 된다. 그러므로 도가의 삼요나 불교의 사대는 모두 이를 이르는 것이다.

((1)- ①)

『黃庭經』에는 <內景>이라는 글이 있고, 醫書에도 역시 內外境界을 담은 그림이 있다. 道家에서는 청정과 수양을 본으로 삼고 醫門에서는 약과 식이, 침구로써 다스림(治)을 삼으니, 도가는 그 정미로움을 얻었고, 의가는 그 거칠음을 얻은 것이다.

((1) - ②)

이제 이 책은 먼저 內景인 精氣神과 장부로 「內篇」을 삼고, 그 다음 外境인 두면 수족 근맥 골육을 모아 「外篇」을 삼았다. 또한 오운육기와 사상, 삼법, 내상과 외감, 여러 병의 證을 모아 열거하여 「雜篇」을 삼았다. 마지막에 「湯液」과 「鍼灸」를 붙여 그 變을 다함으로써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책을 펴보게 하면 (병의) 허실과 경중, 길흉과 생사의 조짐이 물이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분명하여, 잘못 치료하여 요절하게 하는 우환이 없을 것이다.

((1) - ③)

옛 사람들의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의 양과 숫자는 너무 많아 모두 갖추어 쓰기가 어렵다. 『太平惠民和劑局方』의 한 첩(에 들어가는 약물)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이를 다 갖추었겠는가. 『世醫得效方』과 『醫學正傳』은 모두 다섯 돈을 표준으로 하니 너무 거칠다. 대개 한 처방에 네다섯 가지만 들어간다면 다섯 돈씩도 가능하겠지만, 이삼십 가지의 약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약재는 겨우 한두 푼만 들어가게 되어 (그 약의 성미가) 너무 적으니 어찌 효가 없음을 탓하겠는가. 오직 최근의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의 약은 한 첩(에 들어가는 전체 약물의 양)이 ‘일곱, 여덟 돈 혹은 한 냥’에 이르니 약의 성미가 온전하고 양이 적절하여 요즘 사람들의 기품에 꼭 들어맞는다. 이제 모두 그 법도를 따라 (기존의 양을) 줄여서 한 첩으로 만드니 처방에는 편하고 쉬울 것이다.

((2) - ①)

옛 사람들은 “의학을 배우려면 먼저 본초를 읽어서 약성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초는 방대하고 번잡하며 여러 의가의 논의가 한결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약재가 거의 반이나 된다. 지금 쓰이는 처방만을 골라 (이 책에서는) 『神農本草經』과 『日華子註』, 李杲나 朱震亨의 요점만 실었다.

((2) - ②)

또한 중국의 약과 향약을 (함께) 실었는데 향약은 향명과 생산지, 채취 시기, 말리는 법을 써놓았으니 (약을) 갖추어 쓰기 쉬워서 멀리서 구하거나 얻기 어려운 폐해가 없을 것이다.

((2) - ③)

王綸(王節齋)이 “李杲(東垣)는 北醫인데 羅天益(羅謙甫)이 그 의학을 (남쪽에) 전하여 강소성과 절강성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朱震亨은 南醫인데 劉宗厚가 그 학문을 이어 (북쪽의) 섬서성에서 명성이 자자하였다”고 말한 것이 있으니, 의학에 남과 북이 있는 지가 오래 되었다. 우리 나라는 동쪽에 치우쳐 있고 의학과 약이의 道가 끊이지 않았으니 우리나라의 의학은 ‘東醫’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 ①)

“鑑”이란 만물을 밝게 비추어 그 형체가 (거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元나라 때 羅天益에게는 『衛生寶鑑』이 있고, 明나라 때 龔信에게는 『古今醫鑑』이 있는데, 모두 ‘鑑’이라는 글자로 이름을 삼았으니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 ②)

이제 이 책을 펼쳐 한번 보면 (병의) 길흉과 경중이 맑은 거울처럼 밝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東醫寶鑑』이라고 이름지은 것은 옛 사람이 남긴 뜻을 본받은 것이다.

((3) - ③)

### 3. <集例>의 단락별 분석

#### (1)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몸을 살림에 人身의 內外로써 形이 이뤄지고, 精氣神은 內外의 主가 됨을 표명하고 있다. 둘째, 道家와 醫門을 비교하면서 道家는 本을 중시하므로 정미롭고, 醫門은 治를 중시하므로 거칠다고 말한다. 셋째, 『東醫寶鑑』은 ‘內篇’ ‘外篇’ ‘雜篇’ 등으로 구성되며, 각 편은 핵심적으로 다루는 범주가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종합된 결과로서 『東醫寶鑑』은 그 주된 편제를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으로 확정하게 된다.

#### ① 形과 精氣神 그리고 藏府 - 按 人身成形, 精氣神爲主

원문:

臣謹按 人身 內有五臟六腑, 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以成其形, 而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 皆爲此也.

번역:

“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사람의 몸(人身)은 안으로는 五臟六腑가 있고 밖으로는 근과 골, 기와 육, 혈과 맥, 그리고 피부가 있어서 그 形을 이룬다. 그리고 精氣神은 또한 장부와 백체의 主가 된다. 그러므로 도가의 삼요나 불가의 사대는 모두 이를 이르는 것이다.”

분석:

이 문장은 『東醫寶鑑』이란 의서가 견지하고 있는 ‘人身論’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글이다. 즉, 『東醫寶鑑』전편에 걸쳐 그 기강을 확립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인간은 身形과 精氣神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身이 ‘形을 이루기’(成形) 위해선 안으로는 五臟六腑가 있고, 밖으로는 筋骨 肌肉 血脈 皮膚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五臟六腑와 筋骨 肌肉 血脈 皮膚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身形이 이



되지지는 않으며, 나아가 五臟六腑와 筋骨 肌肉 血脈 皮膚가 만들어지는 것도 저절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五臟六腑와 筋骨 肌肉 血脈 皮膚’가 생성되는 것과 이들을 통해 ‘身形’이 이뤄지기 위해선 반드시 五臟六腑와 筋骨 肌肉 血脈 皮膚를 포함한 ‘藏府百體之主’인 精氣神의 관여가 필요하다.

요컨대 龜岩 許浚이 표명한 기강은 ‘사람(人)은身形이 기준이며,身形을 이루게 하는(成) 주체(主)는 精氣神이다’라고 하겠다.

또한 龜岩 許浚은 인간을 살필 때身形과 精氣神을 중심범주로 삼는다는 것은 기존의 道家나 佛家의 이론이 중시하고 있는 입장도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원문에는 ‘人身內有五臟六腑, 外有筋骨肌肉 血脈皮膚以成其形, 而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라는 문장 이후에 ‘故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 皆爲此也’라고 서술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sup>8)</sup> 나아가 道家에서 精氣神 三要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佛家에서 四大成形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때, 차칫 균형잡힌 시각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유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東醫寶鑑 <身形>의 [四大成形]과 [保養精氣神]에서 확인할 수 있다. [四大成形]과 [保養精氣神]에서는 각각 上陽子와 臞仙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四大成形]에서는 “地之盛也 骨如金 水之盛也 精如玉 火之盛也 氣如雲 風之盛也 智如神”<sup>9)</sup>이라 했으며, [保養精氣神]에서는 “精者 身之本 氣者 神之主 形者 神之宅也”<sup>10)</sup>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들은 공통점은 形과 精氣神의 상호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形의 문제를 다룰 때는 精氣神의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精氣神의 문제를 다룰 때는 形의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人身의 成形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精氣神이 주가 되는 기본적인 대상으로 藏府가 있다. [四大成形]이나, [保養精氣神]에서는 形과 精氣神의 관계를 보이기는 했으나 形과 精氣神 양쪽의 공통된 요소로서 藏府가 있음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身形藏府圖]와 함께 『東醫寶鑑』 전편을 이해하는 관건으로서 ‘圖와 書’를 이루는 孫思邈과 朱震亨의 언급과 비교가 된다. 孫思邈은 “天有五行 人有五藏 天有六極 人有六府”<sup>11)</sup>라 하고, 朱震亨은 “形色既殊 藏府亦異 外證雖同 治法迥別”<sup>12)</sup>이라 하고 있다. 孫思邈과 朱震亨을 인용한 문장을 보면 精氣神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孫思邈과 朱震亨을 인용한 문장은 上陽子와 臞仙 글보다 보다 중요

8) ‘三要’는 일반적으로 道家의 三元인 精, 氣, 神을 가리킨다. ‘四大’는 불교용어로서 色과 法(일체의 현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地, 水, 火, 風을 말한다. 『東醫寶鑑』에서 삼요인 精氣神과 사대가 형을 이루게 되는 내용은 내경편 신형 사대성형과 보양精氣神을 참조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겠다.

9) 許浚, 『東醫寶鑑』, 72쪽.

10) 許浚, 『東醫寶鑑』, 74쪽.

11) 許浚, 『東醫寶鑑』, 72쪽.

12) 許浚, 『東醫寶鑑』, 72쪽.

한 위치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孫思邈과 朱震亨의 글은 <身形藏府圖>와 함께 특별한 제목 없이 언급되고 있는데 비해, 上陽子와 羅仙의 글은 <身形>의 [四大成形]과, [保養精氣神]이란 제하에 인용되는 글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藏府에 대한 고려는 『東醫寶鑑』을 이해하는데 있어 身形, 精氣神과 함께 핵심적인 범주라고 하겠다. 다시말해, 人身을 살피는 기강은 물론 形과 精氣神이겠으나 이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五臟六腑는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② 道家와 醫門 - 本精治粗

원문:

黃庭經有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境界之圖. 道家以清淨修養爲本, 醫門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

번역:

“『黃庭經』에는 <內景>이라는 글 (혹은 안을 밝히는 무늬)이 있고, 醫書에도 역시 內外境界를 담은 그림(혹은 안과 밖의 경계와 상)이 있다. 道家에서는 청정과 수양을 本으로 삼고 醫門에서는 藥과 食餌, 鍼灸로써 治를 삼으니, 道家는 그 정미로움을 얻었고, 醫門은 그 거칠음을 얻은 것이다.”

분석:

이 문장은 道家와 醫門을 비교하고 있다. 이 문장을 대구를 이루면서 ‘醫’ 보다는 ‘道’가 더 근본적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道는 ‘家’이지만, 醫는 그 보다 낮은 ‘門’에 속하고, 道家의 이론을 밝힌 글은 經文이지만 醫門의 이론을 밝힌 글은 書圖이다. 道家는 本(本)을 다루지만, 醫門을 (본질보다는) 그 이용법(治)을 다룬다. 그런 까닭에 도가는 정미로우나(精), 의문은 거칠다(粗).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 따를 때, 『東醫寶鑑』은 정미로움을 얻은 책인지, 거칠음을 얻은 책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集例>의 첫 번째 문장이 기강이 된다. 앞서 봤듯이 形과 精氣神의 관계를 언급한 첫 문장 다음에 바로 ‘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 皆爲此也’라 했으니, 『東醫寶鑑』이 形과 精氣神을 위주로 삼은 기강은 이미 道家나 佛家の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흔히 『東醫寶鑑』의 사상적 성향을 道家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集例>의 내용을 따르다면, 形과 精氣神에 대한 강령이 세워진 뒤에는 그 내용이 道家的이든 佛家的이든 그 성향과 무관하게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즉, 龜岩 許浚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東醫寶鑑』은 形과 精氣神이 五臟六腑를 매개로 결합되면서 道家의 정미로움과 醫門의 거칠음을 모

두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東醫寶鑑』 편제의 특징

원문:

今此書，先以內景精氣神藏府爲內篇，次取外境頭面手足筋脈骨肉爲外篇。又採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諸病之證，列爲雜篇，末著湯液鍼灸，以盡其變，使病人開卷日擊，則虛實輕重吉凶死生之兆明若水鏡，庶無妄治夭折之患矣。

번역:

이제 이 책은 먼저 內景인 精氣神과 藏府로써(以) 「內篇」을 삼고, 그 다음 外境인 두면 수족 근맥 골육을 골라 모아(取) 「外篇」을 삼았다. 또한 오운육기와 사상, 삼법, 내상과 외감, 여러 병의 證을 캐내어(採) 열거하여 「雜篇」을 삼았다. 마지막에 「湯液」과 「鍼灸」를 분명하게 드러내어(著) 그 變을 다함으로써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책을 펴보게 하면 허실과 경중, 길흉과 생사의 조짐이 물이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분명하여, 잘못 치료하여 요절하게 하는 우환이 없을 것이다.

분석:

위 문장은 <集例>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다. '形과 精氣神'을 기강으로, '藏府'를 매개로 하여, 道家와 醫門이 지닌 정미로움과 거칠음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는 점을 『東醫寶鑑』의 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集例>에서는 『東醫寶鑑』의 편제가 「內篇」, 「外篇」, 「雜篇」, 「湯液」, 「鍼灸」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東醫寶鑑』의 목록에서는 「內篇」, 「外篇」, 「雜篇」, 「湯液」, 「鍼灸」가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篇」, 「鍼灸篇」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동이 단순한 誤記라고 생각하기엔 『東醫寶鑑』의 편제가 매우 정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集例>에서의 편명과 실제 『東醫寶鑑』의 <目錄>에서의 편명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살피도록 하겠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대로 <集例>에서 언급하고 있는 『東醫寶鑑』 편제가 '형과 精氣神'을 기강으로, '장부'를 매개로 하여, 도가와 의문이 지닌 정미로움과 거칠음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기로 하겠다.

첫째, <集例>에서는 '篇'이라는 명칭을 「內篇」, 「外篇」, 「雜篇」에만 붙이고, 「湯液」, 「鍼

灸」에서는 '篇'을 생략하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 편제의 핵심은 「內篇」, 「外篇」, 「雜篇」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集例>에서는 각 편을 삼계된 次序와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內篇」, 「外篇」, 「雜篇」, 「湯液 鍼灸」에 따라 각각 '先以', '次取', '又探', '末著'의 차서와 방식을 갖는다. 차서로 보자면, 「內篇」- 「外篇」, 「雜篇」- 「湯液 鍼灸」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以'는 內景精氣神藏府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성의 중심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取'는 이미 드러난 것 중에서 필수적인 것을 '가려 뽑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探'는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캐내어 찾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著'는 醫術의 기본인 湯液과 鍼灸를 '분명히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外篇」, 「雜篇」은 차서로만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으나, 편을 삼계된 방식에서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外篇」은 바깥으로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일관성 있게 가려 뽑아서 편을 삼았지만, 「雜篇」은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캐낸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나열하여 편을 삼고'(列爲) 있다.

셋째, <集例>에서는 각 편을 이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內-外-雜 이라는 삼분 구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內篇」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다루는 내용이 '內景'이 되는 '精氣神藏府'이기 때문이다. 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다루는 내용이 '外境'이 되는 '頭面手足筋脈骨肉'이기 때 「外篇」문이다. 「雜篇」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內篇」과 「外篇」이 의학적 차원에서 종합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五運六氣 四象 三法 內傷外感 諸病之證'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나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sup>13)</sup>

#### ④ 종합 :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편제의 확정

이상의 내용이 종합되어 『東醫寶鑑』은 그 주된 편제가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으로 확정된다. 이와 같은 편명은 內-外-雜이란 구조를 갖는 동시에 각 편의 핵심 개념을 덧붙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內篇」 「外篇」 「雜篇」의 핵심 개념은 각각 '景', '形', '病'이 됨을 알 수 있다.

「內景篇」은 '先以內景精氣神藏府爲內篇'에서 알 수 있듯이, 「內篇」의 핵심 개념이 '景'에 있다는

13)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雜篇」의 내용을 數理로 볼 때 잘 드러난다. 「雜篇」은 六五四三二一이 순서대로 보여지고 있다. 五와 六은 五運六氣로, 四는 四象으로, 三은 三法으로, 二는 內傷外感으로 一은 각 病證으로 나타난다. 數의 순서가 정연하게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龜岩 許浚은 이들간의 관계에서 고도의 수리적 관계를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듯하다. 또한 <集例>에서 언급한 四象은 목록의 순서상 '審病 辨證 脈診 用藥'을 일컫는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三法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汗 吐 下'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아울러 「內景篇」을 이해하기 위해선 ‘精氣神과 藏府’ 개념을 위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外形篇」은 ‘次取外境頭面手足筋脈骨肉爲外篇’에서 알 수 있듯이 「外篇」의 핵심 내용은 우선적으로 ‘境’에 있다. 身形藏府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頭面手足筋脈骨肉’이 五臟六腑와 경계를 이루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內景篇」과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外境篇」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데, ‘筋骨肌肉血脈皮膚’는 藏府와 함께 ‘成形’에 참여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頭面手足筋脈骨肉’과 ‘筋骨肌肉血脈皮膚’는 공히 『東醫寶鑑』 「外篇」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外篇」의 핵심개념을 ‘境’으로 할 것인지 ‘形’으로 할 것인지는 『東醫寶鑑』 전반에 걸쳐 각 개념의 상하를 결정짓는 중요가 단서가 된다. 龜岩 許浚의 선택은 「外形篇」으로 나타나게 된다. ‘境’이란 개념과 ‘形’이란 개념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東醫寶鑑』은 「外篇」의 핵심개념을 ‘形’으로 택하게 된다. 장부 및 백체는 精氣神의 主宰하에 있으며, 백체 중에서도 ‘筋骨肌肉血脈皮膚’는 藏府와 더불어 成形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장부와 경계를 이뤄 구분되고, 또한 人身 바깥과 경계를 이뤄 구분되는 특징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雜病篇」은 ‘又採 五運六氣 四象 三法 內傷外感 諸病之證, 列爲雜篇’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이론들이 나열되어 있다. 『東醫寶鑑』은 이 중에서 핵심개념으로 ‘病’을 택하게 된다. 五運六氣든, 病 證 脈 藥을 가리는 四象이든, 吐 汗 下를 하는 三法이든 內傷이나 外感이든 이들 개념을 모두 病과 관련해서 보겠다는 의도를 피력하고 있다.

## (2)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藥方兩數의 全適中合, 本草藥性의 要語, 藥材의 易用無弊 등을 다루고 있다. 원문과 번역 및 이 단락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전반적으로는 실용성이 강조된 단락으로서 그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고 의도가 분명하여 별도의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단락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藥方兩數의 全適中合

원문 :

古人藥方所入之材, 兩數太多, 卒難備用. 局方一劑之數尤多, 貧寒之家何以辨此. 得效方醫學正傳皆以五錢爲率, 甚爲菌莽. 盖一方之四五種, 則五錢可矣, 而至於二三十種之藥, 則一材僅入一二分, 性味微小,

焉能責效。惟近來古今醫鑑萬病回春之藥，一貼七八錢，或至一兩，藥味全而多寡適中，合於今人之氣稟，故今者悉縱此法，皆折作一貼，庶使劑用之便易云。

번역 :

“옛 사람들의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의 양과 숫자는 너무 많아 모두 갖추어 쓰기가 어렵다. 『太平惠民和劑局方』의 한 첩(에 들어가는 약물)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이를 다 갖추었겠는가. 『世醫得效方』과 『醫學正傳』은 모두 다섯 돈을 표준으로 하니 너무 거칠다. 대개 한 처방에 네다섯 가지만 들어간다면 다섯 돈씩도 가능하겠지만, 이삼십 가지의 약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약재는 겨우 한두 푼만 들어가게 되어 (그 약의 성미가) 너무 적으니 어찌 효가 없음을 탓하겠는가. 오직 최근의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의 약은 한 첩(에 들어가는 전체 약물의 양)이 ‘일곱, 여덟 돈 혹은 한냥’에 이르니 약의 성미가 온전하고 양이 적절하여 요즘 사람들의 기품에 꼭 들어맞는다. 이제 모두 그 법도를 따라 (기존의 양을) 줄여서 한 첩으로 만드니 처방에는 편하고 쉬울 것이다.”

분석:

첫 번째 문장의 요지는 ‘약의 성미가 온전하고 양이 적절하여 요즘 사람들의 기품에 꼭 들어맞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이 이 취지에 적합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이 용약을 하는데 있어, 어떤 취지를 갖고 있으며, 원래 처방이 병용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문장이라고 하겠다.

## ② 本草藥性의 要語

원문 :

古之云，欲學醫，先讀本草以知藥性，但本草浩繁，諸家議論不一，而今人不識之材居其半，當撮取方今行用者，只載神農本草經及日華子註東垣丹溪要語

번역 :

옛 사람들은 “의학은 배우려면 먼저 본초를 읽어서 약성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초는 방대하고 번잡하며 여러 의가의 논의가 한결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약재가 거의 반이나 된다. 지금 쓰이는 처방만을 골라 (이 책에서는) 『神農本草經』과 『日華子註』, 李杲나 朱震亨의 요점만 실었다.”

분석:

본초의 약성도 마찬가지로 약성을 이해할 때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神農本草經』과 『日華子註』, 李杲나 朱震亨의 설을 중심으로 요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로 쓰여졌다는 점을 밝히는 문장이다.

### ③ 藥材의 易用無弊

원문 :

且書唐藥鄉藥, 鄉藥則書鄉名與產地及採取時月, 陰陽乾正之法, 可易備用而無遠求難得之弊矣

번역 :

“또한 중국의 약과 향약을 (함께) 실었는데 향약은 향명과 생산지, 채취 시기, 말리는 법을 써놓았으니 (약을) 갖추어 쓰기 쉬워서 멀리서 구하거나 얻기 어려운 폐해가 없을 것이다.”

분석:

이는 藥材 접근의 용이성에서 鄉藥이 갖는 의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했다는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종합 : 『東醫寶鑑』 저술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

이상을 종합하면,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의 약은 약의 성미가 온전하고 양이 적절하여 요즈음 사람들의 기품에 꼭 들어맞는다. 의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약성은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한결같아야 하므로 『神農本草經』과 『日華子註』, 李杲와 朱震亨의 요점만을 실었다. 향약은 향명과 생산지, 채취 시기, 말리는 법을 써놓아 약을 갖추어 쓰기 쉬워서 멀리서 구하거나 얻기 어려운 폐해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宣祖의 교지 중 약물과 관련하여 “여러 醫書가 너무 방대하고 번잡하니 그 요점을 고르기에 힘쓸 것이다. 가난한 시골과 외딴 마을은 醫師와 藥이 없어서 일찍 죽는 자가 많다. 우리나라는 鄉藥이 많이 나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 마땅히 (이들 약물을) 분류하고 향약명을 함께 써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李廷九의 <序>에서 요약한 ‘의술이 1) 책을 통한

정미함(精), 2) 이치의 분명함(明), 3) 혜택의 廣布함을 지녀야 된다'고 본 취지에도 마찬가지로 부합하고 있다.

### (3)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책 이름이 『東醫寶鑑』이 된 연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 ① 東醫 - 醫藥之道不絕如線

원문 :

王節齋有言曰, 東垣北醫也, 羅謙甫傳其法以聞於江浙. 丹溪南醫也, 劉宗厚世其學以鳴於陝西云. 則醫有南北之名尚矣. 我國僻在東方, 醫藥之道不絕如線, 則我國之醫, 亦可謂之東醫也.

번역 :

“王綸(王節齋)이 “李杲(東垣)는 北醫인데 羅天益(羅謙甫)이 그 의학을 (남쪽에) 전하여 강소성과 절강성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朱震亨은 南醫인데 劉宗厚가 그 학문을 이어 (북쪽의) 섬서성에서 명성이 자자하였다”고 말한 것이 있으니, 의학에 남과 북이 있는 지가 오래 되었다. 우리 나라는 동쪽에 치우쳐 있고 의학과 약의 道가 끊이지 않았으니 우리나라의 의학은 ‘東醫’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

王綸이 南醫와 북의를 구분한 기준은 의도를 일으킨 자가 있고, 그 도를 전수받고 전파한 자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알려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집례>에서 許浚의 서술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醫道를 일으킨 자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醫道를 전수받거나 전파한 자 역시 없으며, <集例>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東醫寶鑑』 식의 의론 내지 의학사상이 아직 특정 지역에 알려진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東醫’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醫’라는 용어를 썼다면, 이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東醫’라는 용어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東醫寶鑑』이 간행된 이후 의과학적 궤적을 살펴야 한다. 王綸의 기준에 의하자면, 醫道를 일으킨 자는 龜岩 許浚이며, 『東醫寶鑑』의 간행 이후 현재까지 『東醫寶鑑』은 동쪽에서 그 명성이 자자한 것은 어렵지 않게 수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醫道를 전수받고, 전파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寶鑑 - 明照萬物, 莫逃其形

원문 :

鑑者, 明照萬物, 莫逃其形, 是以元時羅謙甫有衛生寶鑑, 本朝 龔信有古今醫鑑, 皆以鑑爲名, 意存乎此也.

번역 :

“鑑’이란 만물을 밝게 비추어 그 형체가 (거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元나라 때 羅天益에게는 『衛生寶鑑』이 있고, 明나라 때 龔信에게는 『古今醫鑑』이 있는데, 모두 ‘鑑’이라는 글자로 이름을 삼았으니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분석 :

이는 하나도 빠뜨림없이 살펴 서술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되겠다.

③ 『東醫寶鑑』

원문 :

今是書, 披卷一覽, 吉凶輕重, 皎如明鏡, 故遂以東醫寶鑑名之者, 慕古人之遺意云

번역 :

“이제 이 책을 펼쳐 한번 보면 길흉과 경중에 밝음이 맑은 거울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東醫寶鑑』이라고 이름지은 것은 옛 사람이 남긴 뜻을 본받은 것이다.”

분석 :

이 문장은 <집례>의 마지막 문장으로서 『東醫寶鑑』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의 전반부에 “今是書, 披卷一覽, 吉凶輕重, 皎如明鏡”이라는 표현은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인 “使病人開卷目擊, 則虛實輕重吉凶死生之兆, 明若水鏡, 庶無妄治夭折之患矣”와 대구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뜻은 비슷해 보이나 주목할 만한 표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 단락에서는 ‘使病人開卷目擊’이라고 하여 병에 걸린 자가 책을 열어 관련된 부분을 목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마지막 단락에서는 ‘今是書, 披卷一覽’이라고 하여 책을 읽는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책도 전체적으로 一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첫 단락에서는 ‘虛實輕重吉凶死生之兆, 明若水鏡’이라고 하는데 비해, 마지막 단락에서는 ‘吉凶輕重, 皎如明鏡’이라고 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허실과 사생은 빠지고 길흉과 경중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첫 단락에서는 虛實輕重吉凶死生의 ‘징조(兆)’를 알 수 있기에 ‘明若水鏡’ 했으나 마지막 단락에서는 吉凶輕重에 대해 ‘皎如明鏡’이라 했다.

셋째, 첫 단락에서는 病人이 책을 펼친 것이라 그 목적이 ‘잘못 치료하여 요절하게 하는 우환이 없기’를 바라는 데 있지만,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목적이 ‘옛 사람이 남긴 뜻(古人之遺意)’을 본받는 것이다.

④ 종합 : 『東意寶鑑』

마지막 단락은 ‘東醫로서 만물을 밝게 비추어 病人이 아니라도 일람을 하게 된다면 古人之意를 느끼게 될 것’임을 밝히는 글이라고 하겠다. 한마디로 『東醫寶鑑』은 『東意寶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東意’는 바로 龜岩 許浚이 삼가 살펴본 바에 따르자면, 도가와 불가를 모두 포괄하는 ‘人身內有五臟六腑, 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以成其形, 而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라고 하겠다.

### III. 結論

이상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東醫寶鑑』의 ‘人身論’은 形과 精氣神이 기틀이고, 이를 藏府가 매개한다.
- 2) 『東醫寶鑑』은 道家, 佛家, 醫門을 포괄하고 있다.
- 3) 『東醫寶鑑』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이라는 주된 편명은 內-外-雜이란 구조를 갖는 동시에 각 편의 핵심 개념이 ‘景’, ‘形’, ‘病’임을 표명한 것이다.
- 4) 『東醫寶鑑』의 목적은 ‘慕古人之遺意’이며, 이런 관점에서 내용상으로는 『東意寶鑑』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許浚 撰, 『東醫寶鑑』, 南山堂, 1998

許浚 撰, 동의과학연구소 옮김, 『東醫寶鑑』, 휴머니스트, 2002